완도 화재 진압 소방관 2명 순직

단 상

박근종
前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신고 6분 만에 선착대가 도착했고, 오전 9시를 기해 대응 1단계가 발령했으며 현장에는 소방 102명과 경찰 11명, 한전 2명 등 총 인력 115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발생 약 2시간30여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1시23분께 완전 진화를 마쳤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라며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나섰던 고(故) 박승원 소방경(44·완도소방서)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30·해남소방서) 등 소방관 2명이 청천벽력(靑天霹靂)의 날벼락으로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불귀(不歸)의 객(客)이 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1차 진화 뒤 추가 진화를 위해 재진입했다가 밀폐된 창고 안에 쌓인 유증기(油蒸氣:기름이 섞인 공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다 초개(草芥)와 같이 산화(散華)해 하늘의 별이 된 두 소방관은 각각 세 자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따뜻한 아버지이자,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왜 이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린 비극적 소방관 순직 사고가 잊을만하면 반복되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불이 난 곳은 공장에서 미역을 보관하는 1층 냉동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냉동실 바닥 에폭시를 토치로 제거하던 중이었다. 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가 후시라도 예측이 가능한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고 관리되지 못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날 순직 사고로 올해 화재 진압 과정 중 순직한 소방관은 벌써 3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매년 발간하는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순직소방관은 9049명에 달해 한해 평균 905명이나 순직한다. 이들 중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 등 현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총 31명으로, 연평균 3.1명꼴이다. 정부는 소방관 인명 피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헛구호나 형식적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완도 소방관 순직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악한 군 단위 소방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화마와 싸워야만 한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사현장 수습도 소방관 몫이다. 어제 동료를 잃고도 오늘 당장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어야만 한다. 신체적 상해보다 심리적 상해가 더 심각한 소방공무원 숙명이자 운명이다. 모두가 잠든 추운 겨울밤 사이렌 소리를 응원가 삼아 현장을 달려본 사람은 안다. 산소인 양 검은 연기를 마시고 일주일간 시커먼 가래침을 내뱉어본 사람은 안다. 부러지고 짓이기고 떨어져 나간 살점들을 주어 모아본 사람은 안다. 핏방울을 온몸에 적시며 시신을 안고 뛰어본 사람은 안다. 생사를 갈림길에서 일터가 사지(死地)가 될지도 모르고 불길 속을 뛰어들어본 사람은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생사의 갈림길 최일선에서 그 현장이 소방대원 주검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초개와 같이 몸을 던지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다. 소방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을 지켜야만 한다. 소방청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 예방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참극(慘劇)은 우리 사회에 영원히 없어야만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까도비' 신현송, 한은 총재 임명 반대다

아침햇살

고하승 주필

연일 잇따라 터지는 의혹으로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까도비' 후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번엔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으나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여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전용 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B씨였다.

해당 아파트는 B씨가 2003년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옮겨와 보유하던 주택으로, 11년 뒤 다시 아들에게 넘어갔다.

거래는 통상적인 매매와는 다소 달랐다. 당시 B씨는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안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남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신 후보자는 약 10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채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8억원 안팎,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신 후보자는 가족 간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11년 만에 무려 20억원이 넘는 횡재를 한 셈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B씨가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강남 아파트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총 3주택 보유자로 분류된다.

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에 비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런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과연 국민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 큰 문제는 그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은 총재 후보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기준 재산이 증가하는 자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 후보자의 외화 예금과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외환시장 안정을 말아야 할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로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신 후보자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것일까?

윤리와 도덕 문제에 둔감한 탓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전국민의 약 30% 수준으로 국민의 절대다수인 70%가 평생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신 후보자처럼 이재명 정부에 범죄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참담하다.

주거의 질을 혁신해야

기 고

정택윤
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국장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그리고 종로5·6가 일대는 역사적 상징성과 산업적 역동성을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그러나 화려한 도심의 외관 뒤편에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낙후된 주거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노후 주택들과 가파른 경사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미비한 현실은 이곳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들은 보존과 재생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낡은 벽화와 계단 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주거 안전과 편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의 정체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다.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의 노후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은 단순히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고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형적 특성과 봉제 산업 기반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모델을 도입하여, 주거 기능 회복과 지역 산업의 공존을 꾀하는 영리한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로 생활 인프라의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과 만성적인 주차 부족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공동 주차장 확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 확보,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지능형 보안등 설치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로 고령화된 지역 인구를 고려한 주거 복지 모델의 도입이다. 라선거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낡은 주택 내부에 노인 친화적 시설을 보급하거나 보수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주거 환경과 결합해야 한다. 주거지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토목 사업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다.

종로의 가치는 역사의 보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서 완성된다. 창신동, 숭인동, 종로5·6가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혁신하는 일은 종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과업이며,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제보 (02)3676-2114 구독신청 (02)926-0217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치·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926-0392
사회·수도권부 (02)926-0314 편집부 (02)926-0242
총무국 (02)926-0217 영업국 (02)926-0164 FAX (02)762-8223
광고문의 (02)926-0164 윤전부 (032)675-7956

발행·편집인 조윤상 편집국장 이영란 인쇄인 장용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6일 창간 · 2012년 6월 1일 재창간
2001년 10월 8일 등록번호 서울,가00028호 (日刊)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여의도동, 극동VIP빌딩 6층) 구독료 |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예약방법
① 개 인 : 인터넷(www. chpungyh. co. kr.) 예약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안내 : 4인실 (거실겸 방 + 욕실) / 6인실 (거실 + 방 2 + 욕실)
● 부대시설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 관광지 ※사진출처 : 제천시청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호 유람선〉

〈옥순봉 출렁다리〉

● 청풍유스호스텔 전경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누리집 바로가기(QR코드) →